중국병법 36계와 다윗의 1계

(시편 11:1~7)

1.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 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2.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3.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4.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5.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6.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7.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뵈오리로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중국병법 36계와 다윗의 1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중국병법 36계와 다윗의 1계'

저는 36계 병법이 손자병법의 저자인 손무(손자)의 병법중 하나인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6계는 손자병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손자병법보다 더 이전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후대에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기도 한답니다. 이 36계 병법은 실제 전쟁터에서 전세가 급박할 때에 임기응변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적용시킬 수만 있다면 요즘처럼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회사나 가계를 경영하든지 혹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인간관계를 해나갈 때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1년 3월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상하이 스캔들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 총영사와 외교관들이 32세의 덩신밍이라는 중국여성과 수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한국비자 부정발급 및 한국비자 신청대리점 특혜를 주고 국가기밀을 유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36계 병법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세 가지 계책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36계중에 31계인 아름다운 여성을 침투시켜서 적의 사기를 꺾고 정보를 캐오는 미인계(美人計)입니다. 둘째는 첩자를 통해서 정보를 알아온다는 33계 반간계(反間計)입니다. 셋째는 웃는 얼굴을 보이면서 적을 안심시킨 후에 적이 눈치 채지 못하는 사이에 은밀하게 목적을 달성한다는 10계 소리장도(笑裏藏刀)로서 웃음 속에 칼날을 품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계책 중에서 마지막으로 36계 줄행랑이 있습니다. 한자로 하면 주위상책(走爲上策)이라고 합니다. 도망가는 것이 최고의 책략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36계는 실질적으로 전쟁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36계의 가장 큰 단점은 36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고 세 가지 원칙만 제시해도 힘들어하는데 36가지는 너무 많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실과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사건들 속에서 36계를 자유자재로 기억해내면서 순간순간 임기응변의 계책을 발휘하며 살아가기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과 주어지는 상황과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가장 적당한 행동과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머리로는 36계는 실질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은 더 줄이거나 세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계책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백 가지, 천 가지, 만 가지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무차별하게 한 가지 계책으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명료하기 때문에 힘차게 살아갈 수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계책이 무엇일까요?
앞서 36계중에서 마지막 계책이 주위상책입니다. 오늘 시편은 바로 그 도망감을 이야기합니다. 도망감의 포인트는 목숨의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으로부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제시한 단 한가지의 계책은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36계 주위상책이 육체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위협이 도사리는 현장을 빠져나가는 것이라면, 다윗이 말하는 계책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육체의 목숨보다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삶의 현장에서 위기가 닥칠 때에 마음이 어떻게 빼앗기는가를 보았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빼앗기면 다 빼앗긴다는 것을 알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도망갑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나의 기업과 나의 몫으로 받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빼앗긴다면 하나님을 받을 수도 모실수도 없고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셔 들이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면 삶의 터전이 다 없어진다고 하여도 애초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백 번 천 번이고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무엇에게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법정스님도 난초에 마음을 빼앗겨서 당신이 생각하던 진리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감을 깨달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돈이나 가족들로 인해 일어나는 가지가지 사건들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단 하나의 계책이 유효한데 36계 줄행랑이라고 불리는 주위상책입니다. 그러나 몸이 살기 위해서 그 자리를 빠

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로 삶의 모든 문제를 관통하면 단순명료하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이거나 압살롬의 모반 때라고 추정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백발백중의 능숙한 사냥꾼이 나무에 앉은 새를 노리는 것 같은 위기가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의 말이 아니라 다윗을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신하들의 권고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1절에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라고 하는데 의인 다윗을 향하여 악인들이 어두운 곳에 숨어서 화살을 당기려 하니 산으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 도다'라고 합니다. 화살이 시위를 떠나면 바로 다윗에게 꽂히는 아슬아슬하고 아찔한 위기상황입니다. 또한 3절에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합니다. 여기서 '터'는 국가의 시스템이나 사회의 시스템을 말합니다. 법률 질서 불문율 등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상식과 통제가 허물어져가는 이 상황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도망가라는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말들을 들으면서 의아해합니다. 이미 피난을 갔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윗이 생각하는 피난의 개념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피난의 개념과는 달랐습니다. 다윗의 피난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생각하는 친구들의 피난은 몸이 위기에 처한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36계 줄행랑을 치는 것입니다. 일단 내 몸을 살리고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자꾸 피난하라고 하지만 다윗은 이미 피난을 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보기에는 다윗은 여전히 위협에 처한 상황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몸은 위기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로 피난을 보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압살롬의 사건이나 사울 왕에게 쫓길 때의 일은 아닐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사울 왕 때에나 압살롬 때에는 다윗이 몸을 피신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몸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마음이 피신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어떤 위기가 닥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가치관으로는 이렇게 마음 안으로 위기상황이 들어온다면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육체의 위기 때문에 목숨과 왕권을 잃을 위기에 처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다윗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잃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서 여겼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모반을 했을 때에도 다윗은 나라를 잃음과 동시에 아들을 잃는 것입니다. 이때에 다윗은 몸을 피신하기 이전에 이미 마음을 하나님께로 피신시켰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사로잡히자 두려움과 걱정에 떨게 되고 하나님이 계실 자리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은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잃어버릴 수 없다는 심정으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보내는 것을 피신이라고 한 이유는 마음을 끌어들이는 상황의 힘이 굉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압살롬 사이에 있는 다윗의 마음이 부자간의 인연을 끊고 아들을 상실할 위기를 자초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압살롬 쪽으로 끌려들어갑니다. 마치 나이야가라 폭포에 휩쓸린 사람이 급류에서 살아남기 위해 물살을 거슬러 헤엄을 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갔기 때문에 이것을 피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압살롬 대신에 돈 문제, 자녀문제, 또는 내 건강문제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인 마음에 세상 문제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을 모실 공간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문제를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불러보아도 그것은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일 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이 마음에 담기는 이유는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평안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만 계시면 내 마음에 평강이 채워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실제로 사울 왕에게 피하여 십여 년 동안 도망을 다니고, 압살롬 때에도 피난 갔던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휘하에 두고도 골리앗 앞에서 무서워 떨고 있을 때에, 십대 후반의 목동 다윗은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물매와 돌멩이 다섯 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 맞섰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격동시켜서 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렇게 화가 난 골리앗과 소년 다윗이 대치하는 국면보다 더한 위기가 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한 번의 돌팔매로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는 왜 사울을 죽이지 못했던 것일까요? 사울은 온 군대를 거느리고도 골리앗 앞에서 꼼짝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십여 년을 도망을 다녔습니다.
압살롬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주색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간신에 의해서 나라가 좌우되고 있던 때도 아니었습니다. 건축을 하느라 백성들의 고혈을 뽑아내는 바람에 민심이 이반되던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백전노장의 장군들이 여전히 다윗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작정하면 압살롬을 무찌르지 못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이나 압살롬에게 도망친 것을 사람들은 피신했다고 하지만 다윗에게는 피신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나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다윗의 마음은 이미 하

나님께로 도망친 후였습니다. 그 때에 몸이 피신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지 다윗이 도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마음을 하나님께 보내자 하나님께서 압살롬에 대한 계책을 마련하시고 다윗을 그냥 성에서 빠져나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시므이 같은 자에게 모욕을 듣게도 하심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취시키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십여 년 도망을 다니면서 끊임없는 구원을 경험토록 하심으로서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도망은 하나님이 만드신 계책을 따르는 코스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 하나의 계책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마음을 빼앗아 가려는 것들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지배하려는 것과 이미 지배하는 것들에 대해 깨닫고 그러한 마음 상태에서 죽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도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도망하고 나면 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계책이 있습니다. 36계의 계책이 아니라 무한대의 계책으로 움직여 나가실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의 계책으로 만사를 꿰뚫고 있지만 그 만사는 하나님의 무한대의 계책 안에서 이끌림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친구들은 다윗이 비록 의인이지만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피신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4절에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리로다'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지 않는 한 삶의 터전은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목동이었던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고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이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세우신 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터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터전이 깡그리 없어진다고 하여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없어지지 않는 한 다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하나님께 도망감으로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과 계책 중에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몸이 도망친다 하여도 내가 원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여러 계책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지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계책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압살롬에게서 도망하였지만 오히려 압살롬이 죽고 고스란히 왕궁으로 되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단 하나의 계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일에 방해하는 모든 일로부터 도망가야 합니다. 십자가 붙잡고 그것들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것들이 점령한 내 마음을 죽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도망가면 하나님께서는 손자의 13편의 병법과 36계 병법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는 36계가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다윗의 1계로 삶을 관철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본문에서 보여주었던 다윗의 1계를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관철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